

19 선박 용접작업자에서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성별	남성	나이	59세	직종	용접직	직업관련성	낮음
----	----	----	-----	----	-----	-------	----

1 개요

근로자 ○○○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장 조선사업부에서 선박 건조를 위한 아크 용접, 블록 용접, 아르곤 티그 용접 등의 용접 업무를 약 11년간 수행 하였다. 2012년 12월 등산 도중 넘어져 좌측 9번째 좌측 늑골이 골절된 후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고 전신 위약감, 복부 팽만의 증상 및 고질소 혈증으로 정밀 검사를 시행하여 2013년 1월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았다.

2 작업환경

○○○은 1996년 군복무를 마친 후 1997년 ◇사업장에서 1년간 섬유 뽑는 기계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자동차 판매 영업에 종사하였다. 2001년 9월부터 상병발생전인 2012년까지 □사업장에서 약 11년간 아크 용접, 블록 용접, 아르곤 티그 용접 등의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과거 작업환경 측정결과상 용접흠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공정에서 사용되는 물질 분석 및 작업환경 측정 결과에서 전리방사선, 벤젠, 산화에틸렌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

3 해부학적 분류

- 림프조혈기계암

4 유해인자

- 화학적 요인(기타 화학물)

5 의학적 소견

○○○은 2012년 12월 등산 도중 넘어져 좌측 9번째 늑골이 골절된 후 약물 치료

를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고 전신 위약감, 복부 팽만의 증상 및 고질소 혈증으로 정밀 검사를 시행하여 2013년 1월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았다.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 ○○○은 2001년 9월부터 2012년까지 □사업장 조선사업부에서 약 11년간 용접(아크 용접, 블록 용접, 아르곤 티그 용접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로자의 다발성 골수종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전리방사선, 벤젠, 산화에틸렌 등이 있으나, 용접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상기 유해요인에 노출되지 않았거나, 노출 수준이 낮았을 것으로 평가, 추정 되었다. 따라서 근로자의 다발성 골수종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끝.